

일부 근로자들의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인식 조사

홍민희¹, 김윤신¹, 정미애^{1*}
¹한양대학교 보건학과

A Study on the Oral Health Care and Oral Health Awareness of Some Laborers

Hong Min-hee¹, Kim Yoon-shin¹ and Jeong Mi-ae^{1*}

¹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화성에 소재한 K자동차 근로자 220명과 부평에 소재한 D자동차 근로자 1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잇솔질 횟수 조사 결과 하루에 잇솔질을 3회 하는 근로자는 44.0%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9.00$, $p<.01$). 근로자들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유무 조사 결과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41.3%이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20$, $p<.01$). 근로자들이 치석제거를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한 근로자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chi^2=8.60$, $p<.05$), 연령($\chi^2=20.07$, $p<.01$), 학력($\chi^2=11.88$, $p<.01$), 전신질환 유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19$, $p<.05$).

근로자들의 구강 내 질환 조사 결과 치아가 썩은 근로자는 27.8%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치아가 썩었거나 잇몸이 부었다고 조사되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65$, $p<.0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oral health care and oral health awareness of some laborers. Out of them, 220 workers were selected from K motor company in Hwaseong, and the other 180 workers were selected from D automobile company in Bupyeong.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s for daily toothbrushing frequency, the largest number of the laborers investigated(44.0%) brushed their teeth three times a day. Smoking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at($\chi^2=19.00$, $p<.01$). Concerning the use of oral hygiene supplies, 41.3 percent put oral hygiene supplies to us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at aspect according to gender($\chi^2=9.20$, $p<.01$). Regarding scaling experience, the largest group(37.3%) had their teeth scaled twice or more, and their scaling experience significantly varied with gender($\chi^2=8.60$, $p<.05$), age($\chi^2=20.07$, $p<.01$), academic credential($\chi^2=11.88$, $p<.01$)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systemic diseases($\chi^2=8.19$, $p<.05$).

In relation to oral diseases, the greatest group(27.8%) had dental caries. By gender, the female workers had more dental caries or the more swollen gums than the males, and the gap between the two was significant($\chi^2=13.65$, $p<.05$).

key words : The oral health of laborers, Oral hygiene supplies, Toothbrushing, Oral health care, Oral diseases.

1. 서론

근로자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은 개인은 물론 기업체의 생산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구강건강은 전체건강의 일부로서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구강보건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2] 산업구강보건의 목

적은 근로자의 치아수명을 연장하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유지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구강상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구강상병을 관리하고 구강보건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근로자의 구강건강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3]구강

*교신저자 : 정미애(comet810@hanmail.net)

접수일 09년 08월 07일

수정일 09년 08월 26일

게재확정일 09년 09월 16일

건강의 분류에서 직장 내에서의 구강건강관리는 성인구강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산업구강건강의 핵심대상이자 성인구강건강의 주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은 성인구강건강과 산업구강건강 영역의 공통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수립, 개선되어야 하고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4,13].

Schou[11]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장소는 사업장이며, Ide[15]는 근로자의 구강건강은 사업장의 집단구강건강 관리과정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업장 근로자의 전신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은 근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반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업적은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실태보고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실제적으로 증진·유지시킬 수 있는 연구 보고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근로자들을 위한 예방중심의 구강보건프로그램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치아수명을 연장시키고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행태 및 인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분석함으로써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3월 1일 ~ 3월 31일까지 한 달 간 화성시에 위치한 K자동차 근로자 220명, 경기도 부평에 위치한 D자동차 근로자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420부로 치과위생사 4인이 개인적으로 설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게 하여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20부를 제외한 총 400부를 분석하였다.

2.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관리 행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정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잇솔질 횟수

구 분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이상	계	χ^2 (df)	p
성별	남	12(3.4)	154(43.4)	156(43.9)	33(9.3)	355(88.7)	16.23** (3)	0.001
	여	3(6.7)	10(22.2)	20(44.4)	12(26.7)	45(11.3)		
학력	고졸 이하	9(3.4)	119(44.7)	120(45.1)	18(6.8)	266(66.5)	17.40** (3)	0.001
	대졸 이상	6(4.5)	45(33.6)	56(41.8)	27(20.1)	134(33.5)		
가정 월 소득	200만원 미만	6(3.8)	77(48.1)	59(36.9)	18(11.3)	160(40.0)	14.40* (6)	0.025
	200~300만원 미만	8(5.5)	49(33.6)	77(52.7)	12(8.2)	146(36.5)		
	300만원 이상	1(1.1)	38(40.4)	40(42.6)	15(16.0)	94(23.5)		
전신질환 유부	유	6(7.6)	37(46.8)	25(31.6)	11(13.9)	79(19.8)	8.74* (3)	0.033
	무	9(2.8)	127(39.6)	151(47.0)	34(10.6)	321(80.2)		
흡연여부	현재 피운다	9(4.3)	102(49.0)	80(38.5)	17(8.2)	208(52.0)	19.00** (6)	0.004
	과거에 피웠으나 아니다	3(3.1)	34(35.1)	42(43.3)	18(18.6)	97(24.3)		
	전혀 피우지 않는다	3(3.2)	28(29.5)	54(56.8)	10(10.5)	95(23.7)		
계		15(3.8)	164(41.0)	176(44.0)	45(11.2)	400(100.0)		

* p<.05, ** p<.01

3. 연구 결과 및 해석

3.1 구강건강 관리 습관

3.1.1 잇솔질 횟수

근로자들이 하루에 잇솔질 하는 횟수 조사 결과는 표 1과 같이 하루에 잇솔질을 3회 하는 근로자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두 번 41.0%, 그 이상 11.2%, 한 번 3.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 여 모두 하루에 잇솔질을 3회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23, p<.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하루에 잇솔질을 2~3회 하였으며, 대졸 이상은 하루에 3회 하였다. 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 이하가 하루에 잇솔질을 하는 횟수가 더 많다고 조사되었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7.40, p<.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에 잇솔질을 2회 하였고,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3회 하였으며,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4.40, p<.05$). 전신질환 유무별로는 전신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하루에 잇솔질을 2회 하였고, 전신질환이 없는 근로자는 3회 하였으며, 전신질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74, p<.05$). 흡연 여부별로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하루에 잇솔질을 2회 하였고,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근로자는 3회 하였으며,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9.00, p<.01$).

3.1.2 구강위생용품 사용

근로자들이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위생용품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 58.7%, 사용하는 근로자 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는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였으며, 남자는 61.4%가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조사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9.20, p<.01$).

[표 2] 구강위생용품 사용 유무

구분	사용	비사용	계	χ^2 (df)	p
성별	남	137(38.6)	218(61.4)	9.20** (1)	0.002
	여	28(62.2)	17(37.8)		
계	165(41.3)	235(58.7)	400(100.0)		

** p<.01

사용중인 구강위생용품 중 치간칫솔과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각각 2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동칫솔 22.3%, 치실 19.7%, 잇몸약 5.2%, 기타 용품 3.1%, 워터픽 5.2% 순으로 나타났다.

3.1.3 치석제거 경험

근로자들이 치석제거를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이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받은 근로자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한 번 24.5%, 정기적으로 받는 다 13.5% 순으로 나타났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근로자는 24.7%를 차지하였다.

[표 3] 치석제거 경험

구분	한 번	두 번 이상	정기적	경험 없음	계	χ^2 (df)	p
성별	남	93(26.2)	133(37.5)	43(12.1)	86(24.2)	8.60* (3)	0.035
	여	5(11.1)	16(35.6)	11(24.4)	13(28.9)		
연령	30세 미만	35(24.5)	40(28.0)	23(16.1)	45(31.5)	20.07** (6)	0.003
	30~40세 미만	45(22.5)	79(39.5)	29(14.5)	47(23.5)		
	40세 이상	18(31.6)	30(52.6)	2(3.5)	7(12.3)		
학력	고졸 이하	74(27.8)	101(38.0)	26(9.8)	65(24.4)	11.88** (3)	0.008
	대졸 이상	24(17.9)	48(35.8)	28(20.9)	34(25.4)		
전신질환 유무	유	18(22.8)	22(27.8)	10(12.7)	29(36.7)	8.19* (3)	0.042
	무	80(24.9)	127(39.6)	44(13.7)	70(21.8)		
계	98(24.5)	149(37.3)	54(13.5)	99(24.7)	400(100.0)		

p<.05, **p<.05

[표 4] 구강 내 질환

구 분	치아가 썩었다	잇몸이 부었다	치아가 빠졌다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한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없다	계	χ^2 (df)	P	
성별	남	96(27.0)	41(11.5)	20(5.6)	10(2.8)	81(22.8)	30(8.5)	77(21.7)	355(88.7)	13.65*	0.034
	여	15(33.3)	12(26.7)	3(6.7)	2(4.4)	8(17.8)	2(4.4)	3(6.7)	45(11.3)	(6)	
연령	30세 미만	51(35.7)	20(14.0)	8(5.6)	4(2.8)	31(21.7)	13(9.1)	16(11.2)	143(35.7)	22.62*	0.031
	30~40세 미만	51(25.5)	23(11.5)	10(5.0)	8(4.0)	46(23.0)	12(6.0)	50(25.0)	200(50.0)		
	40세 이상	9(15.8)	10(17.5)	5(8.8)	-	12(21.1)	7(12.3)	14(24.6)	57(14.3)	(12)	
전신 질환 유무	유	25(31.6)	13(16.5)	6(7.6)	3(3.8)	14(17.7)	6(7.6)	12(15.2)	79(19.8)	4.16	0.655
	무	86(26.8)	40(12.5)	17(5.3)	9(2.8)	75(23.4)	26(8.1)	68(21.2)	321(80.2)	(6)	
흡연 여부	현재 피운다	62(29.8)	30(14.4)	13(6.3)	10(4.8)	35(16.8)	14(6.7)	44(21.2)	208(52.0)		0.131
	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아니다	22(22.7)	15(15.5)	5(5.2)	-	28(28.9)	7(7.2)	20(20.6)	97(24.3)	17.52	
	전혀 피우지 않는다	27(28.4)	8(8.4)	5(5.3)	2(2.1)	26(27.4)	11(11.6)	16(16.8)	95(23.7)	(12)	
계	111(27.7)	53(13.3)	23(5.8)	12(3.0)	89(22.2)	32(8.0)	80(20.0)	400(100.0)			

* p<.05

성별로 남자는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하였고, 여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60$, $p<.05$).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인 근로자는 치석제거 경험이 없다고 31.5% 응답하였으며, 40세 이상인 근로자는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받았다고 23.5%로 조사되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치석제거 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0.07$, $p<.01$).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하였고, 대졸 이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으며,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88$, $p<.01$).

전신질환 유무별로는 전신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치석제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전신질환이 없는 근로자는 두 번 이상 하였으며, 전신질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19$, $p<.05$).

3.1.4 구강 내 질환

근로자들의 구강 내 질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4와 같이 구강 내 질환으로 치아가 썩은 근로자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잇몸에서 피가 난다 22.2%, 잇몸이 부었다 13.3%,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8.0%, 치아가 빠졌다 5.8% 순으로 나타났고, 구강 내 질환이 없는 근로자는 20.0%를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구강 내 질환이 없었고, 여자는 치아가 썩었거나 잇몸이 부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3.65$, $p<.05$).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은 20~30세 미만보다 구강 내 질환이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62$, $p<.05$). 전신질환 유무별로는 전신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구강 내 질환으로 치아가 썩었고, 전신질환이 없는 근로자는 잇몸에서 피가 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흡연 여부별로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구강 내 질환으로 치아가 썩었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잇몸에서 피가 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4. 결론

구강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지식,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행동향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의식을 높여야 한다[2].

근로자의 구강건강관리는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고, 구강병에 기인한 근무장소 이탈을 감소시켜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산업보건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4]. 또한 이러한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근로자의 기능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근로 장애를 줄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11]. 구강상병검진은 개개인이 검진치과 병의원에 내원하여 이루어

어지기보다는 주로 집단적으로 구강상병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는 비현실적 수가와 제도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검진 외에는 어떠한 현실적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경섭[5]의 연구에서 잇솔질을 1일 2회 한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37.2%, 3회가 40.6%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잇솔질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명옥[6]의 연구에서는 하루 3회 이상 잇솔질을 한다고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루에 잇솔질을 3회 하는 근로자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잇솔질 횟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잇솔질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구강보건행태의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잇솔질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혀 많은 근로자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구강위생용품 사용여부 및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조사한 결과 김혜진[7]의 연구에서는 구강청정제 사용자가 71.8%, 치간칫솔 79.6%, 치실 66.3%로 조사되었으며, 정명옥[6]의 연구에서는 치주질환자 및 고정성 치아보철환자들이 치간칫솔 59.7%, 63.8%, 임플란트 식립 환자는 90%가 치간칫솔을 사용한다고 조사되었다.

이정희[8]의 연구에서는 구강보조위생용품 중 치실사용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치간칫솔 20.9%, 전동칫솔 8.6%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치간칫솔과 구강정제제의 사용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구강보조용품의 사용이 매우 미약하며 구강건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등의 구강보건전문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구강위생용품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권장과 홍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자들의 치석제거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박경섭[5]의 연구에서는 최근 1년간 치석제거를 받은 근로자가 25.2%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이 25.7%로 조사되었다. 이정희[8]의 연구에서는 정기적인 스크링을 받는 성인 중 여성이 85.2%로 남성에 비해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심지은[9]의 연구에서 스크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대상 근로자의 72.3%가 한번 이상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받은 근로자는 37.3%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치석제거술의 경우 치주 질환의 회복 및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구강건강 및 치주질환예방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근로자들의 구강내 질환 조사 결과 박경섭[5,3]의 연구에서는 “찬 음식에 이가 시리다” 응답한 근로자는 37.2%,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4.4%로 조사되었다. 윤은경[10]의 연구에서는 “잇몸이 부었다” “치아가 썩었다”에 각각 25.5%,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24.1%, 잇몸에서 피가 난다 21.3%로 조사되었다. 심지은[9]의 연구에서는 치아가 시리다 30.2%, 잇몸에서 피가 난다 20.6% 순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구강 내 질환으로 치아가 썩은 근로자가 2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잇몸에서 피가 난다 22.2%, 잇몸이 부었다 13.3%,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8.0%, 치아가 빠졌다 5.8%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양대구강병으로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으로 알려져있다. 근로자들의 잦은 출장과 2교대 근무로 인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구강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잦은 출장과 2교대 근무로 인한 작업환경으로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현저히 적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두 군데의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고 표본을 선정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화성에 소재한 K자동차 근로자 220명과 부평에 소재한 D자동차 근로자 18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습관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근로자들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들이 하루에 잇솔질 하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잇솔질을 3회 하는 근로자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chi^2=16.23, p<.01$), 학력($\chi^2=17.40, p<.01$),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chi^2=14.40, p<.05$), 전신질환 유무별($\chi^2=8.74, p<.05$), 흡연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9.00, p<.01$). 근로자들이 구강건강을 위해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구강위생용품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58.8%로, 사용하는 근로자 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들이 치석제거를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치석제거를 두 번 이상 받은 근로자가 37.3%로 가장 많았으며, 성별($\chi^2=8.60, p<.05$), 연령($\chi^2=20.07, p<.01$), 학력($\chi^2=11.88, p<.01$), 전신질환 유무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8.19, p<.05$). 근로자들의 구강 내 질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치아가 썩은 근로자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잇몸에서 피가 난다 22.3%, 잇몸이 부었다 13.3%,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8.0%, 치아가 빠졌다 5.8%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chi^2=13.65$, $p<.05$), 연령($\chi^2=22.62$,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22.62$, $p<.05$).

참고문헌

- [1]. 김중배 등, 공중구강보건학, 8판, 고문사, pp.122-126, 2002.
- [2] 장기완, 황윤숙, 김진범, 송운신, 백대일, 최부근 외 5인, 구강보건교육학, 4판, 서울, KMS, pp.3~19, 2007.
- [3] 고대호, "산취급산업장근로자의 구강상병기인 근로손실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예방치학 전공, 2006.
- [4] 최복희, "일부 근로자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2004.
- [5] 박경섭, "충남지역 사업장 근로자의 구강건강수준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6] 정명옥, "치과병원 내원화자들의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 실태", 영남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6.
- [7] 김혜진, "산업 근로자의 구강건강실태 조사 연구", 계명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0.
- [8] 이정희, "구강보건 인식과 실천 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7.
- [9] 심지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치주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조선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2.
- [10] 윤은경, "내원환자의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인식도 조사", 조선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2003.
- [11]. L.Schou, Oral health promotion at worksites. Int Dent J Vol.39, pp.122~128, 1989.
- [12] S. T. Reisine. Dental disease and Work loss. J Dent Res Vol.63, No.9, pp.1158~1161, 1984.
- [13] Park GS, A Study on the Level of Dental Hygiene and the Behavior for Workers at Workplaces in Chungnam Province.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3.
- [14] Song JR: An Investigational Study on the Behaviors of Dental Health for Workers in Iksan-si and the Requirement for Dental Health Educatio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07.
- [15] Ide R, Mizoue T, Tsukiyama Y, Ikeda M, Yoshimura T. Evaluation of oral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 the effects on dental care costs and frequency of dental visits. Comm Dent Oral Epidemiol, Vol.29, pp.213~219, 2001.

김 윤 신(Yoon-shin Kim)

[정회원]



- 1978년 2월 : 일본 동경대, 보건학박사
- 1985년 1월 : Univ.of Texas SPH at Houston, 환경학박사
- 1986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설립 및 주임교수
- 2000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교실 교수
- 1989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부설「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설립/소장
- 2004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보건교육 전공 설립 및 주임교수

<관심분야>

환경 및 산업보건, 인류생태학, 실내환경학, 노인보건학, 보건콘텐츠

정 미 애(Mi-ae-Jeong)

[정회원]



- 1999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석사졸업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박사졸업,
- 1998년 3월 ~ 2008년 12월 : 동우대학 치위생과 부교수 역임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학, 노인요양복지학

홍 민 희(Min-Hee Hong)

[정회원]



- 2006년 2월 :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사 졸업
- 2006년 2월 : 한양대학교 입학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석사과정 수료
- 2009년 2월 :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007년 2월 ~ 2009년 8월 : 큰나무의료생협 부속치과 병원 소문난치과 제직

<관심분야>

의생명공학, 예방치과학, 미생물학, 노인보건학